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1-11

2차 선교여행 중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 설교 후에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속 주의 수도로서 해상교통의 중심 항구도시였고 인구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아크로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신전에는 성전 창기 1,000명이 있었고, 아폴론신전에서는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고린도식으로 산다’는 말은 ‘성적으로 방종하게 산다’는 관용어가 될 정도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운하는 네로가 6,000명의 유대인을 잡아 착공했지만 프랑스 토목기술자에 의해서 1893년에야 완공되었습니다. ▶초대기독교의 영적 거장인 바울이라도 항상 승승장구하고 득의양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의 선교는 열띤 논쟁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핍박은 없었지만 바울은 참담한 심정으로 80km를 걸어 고린도로 가야 했고 동역자가 올 때까지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아덴의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인간 지혜의 한계를 알게 했고 사람의 능력 대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교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물질적으로 자비량 선교의 멍에를 매야 하며, 영적으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탈진한 엘리야가 로렘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일이 연상됩니다. 바울은 이때의 사정을 서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고전 2:3-5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은 인간이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강함보다는 실패, 고통, 의문, 갈등을 통해 이끌어 가는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약하고 깨지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여러 가지로 도우셨습니다. ① 동역자: 인간은 때로 몸을 지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친 바울에게 동역자가 생겨났습니다. AD49년 로마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 시에서 추방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고린도와 와 있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 부부는 17년 동안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후원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공동일터로 혹은 교회의 모임 장소로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처소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교회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역의 은인으로서,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을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② 격려와 확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밤의 환상을 통해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에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는 모세 사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유사한 것입니다. ③ 사역의 열매: 사역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회당과의 결별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의 개종은 바울 사역의 파급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른 회당장인 소스데네, 고린도의 유력한 행정관료 에라스도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후 바울은 유대인들의 무고를 당해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종교문제에 대한 불간섭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은 뒤 단기간에 걸쳐 에베소와 가이사랴를 거쳐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간 뒤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완전한 회복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절망과 좌절 대신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